논어 3편 팔일 25장 · 쓰기 연습

子謂韶：「盡美矣，又盡善也。」謂武：「盡美矣，未盡善也。」

이 장의 글자를 문장 순서대로 따라 쓴 뒤, 바로 아래 빈칸에 써 보세요.

子 謂 韶 盡 美 矣 又 盡 善 也 謂 武

盡 美 矣 未 盡 善 也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